

입문

'마음' 찾는 안내서

■심지종경/해동스님 지음

내 실체는 무엇이고 삶이란 어떤 것인가? 문득 문득 회의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고민의 핵심 역시 중국적으로는 '심과 자기 자신'에 있다. 말아대사는 "불교의 8만4천 법문은 모두 '마음'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자 해동스님은 인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창조적인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한다. 선(禪)수행의 요점과 참선하는 법, 말아대사의 오묘한 해설, 부처님의 교화방법 등을 통해 '마음'을 찾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원문화사 12,000원 (02)704-1626



교양 학술

인도·인도인의 일상

■내가 알고 싶은 인도/백작을 외 지음

이 책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적 맥락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화합과 반목을 드러내는 토착의 이야기기에 주목한 책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각종 기행문과 사상사적인 책들로 인해 '신비로운 땅'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작자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산비' 속에 파묻혀 있었다. 이 책이 인도인의 일상생활과 카스트 제도, 근대 역사, 정치·경제 구조와 이데올로기까지를 폭넓게 다룬 것도 균형잡힌 인도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부제 '사람·역사·문화'로 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를 방문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을 꼭 읽어보아야 할 교양서. 한림사 10,000원 (02)515-4811



기타

선악의 뒤안길 '풍수'

■풍수로 보는 가문/강영수 지음

어떤 가문에서 장승관서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효자·열부가 나왔는가. 전국을 돌며 취재여행을 하던 풍수사들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선과 악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다!" 그렇다. 과거에도 한 가문의 흥망은 '마음'과 '지리'의 영향을 풍수사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는 여기저기 드러났다. 출신 열사들의 무덤과는 달리 벽노와 역적들의 봉분은 명당지리에 자리잡고 있었음에도 무덤 속은 벌레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 '인과응보' 바로 그것이었다. 선악을 밝힌 자가 밝힌 땅은 나뉠대로 생기를 감응시켜 그것을 후대에 전한다. 어떤 자는 생전에 지은 악업으로 후손들을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몰아간다. 그 이유는 바로 땅에 있으며,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중명 8,000원 (02)636-6873



금주의 베스트

맑고 청빈한 얘기 '한쪽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줄기처럼, 때로는 경쾌히 내리는 벼락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간직하는 '풍요로운 갑옷'에서 벗어날라는 깨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흥취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측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색에서 들려온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희망의 메세지 '미륵사상'

■미륵 6부경/정의행 역주

미륵사상은 곧 희망이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 세상에 인내하고 청정한 세상으로 변화하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다는 희망의 메세지다. 미륵 6부경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상생불경> <미륵하생불경> <미륵사상경> 등으로, 미륵사상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들 미륵경을 모두 번역하고 역주를 달아 누구나 쉽게 미륵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경전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소제목 붙여 읽기 편하도록 했으며, 미륵신앙과 그 사상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폈다. 미륵신앙의 참뜻을 널리 알리자는 것이 저자의 의도다. 이비지 6,000원 (062)226-9289



중국조각 양식의 과정

■중국 불교조각사 연구/정예경 지음

중국조각은 광명적이고 회화적인 전통양식에 새로운 형태의 입체적이고 조소적인 양식을 가미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술 문화였다. 이 책은 이러한 조각양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살핀 학술연구서. 수양식의 본질을 조각 양식의 공간배치, 양감표현, 비례, 자세, 양면표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이 시대의 조각이 중국 조각 사상 최초로 인체를 유기적인 구조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된 3차원적인 조각은 남인도·동남아시아의 조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어, 저자는 그 어원을 회화적이고 산적(山積)인 중국의 2D 조각전통을 강력한 지렛대로 삼으면서 외래요소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해안 15,000원 (02)3141-3711



질서와 법칙의 존재

■시주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백승현 지음

우주에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인간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을 잘 알고 다스리면 건강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담은 책 자신의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사주를 통한 사상해설 방법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백승현 한국한방의학연구소의 회장은 사주를 알면 체질을 알아 건강을 진단할 수 있고, 건강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즉 사상의 오장육부는 음양에 따라 신진적인 화와 물을 가지는데 사주를 알면 그 상태를 알아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시대 9,500원 (02)3443-4307



참된 삶 이끄는 주옥같은 금언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스님 지음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안전한 몸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흉을 배서 찾지도 말고 악정이 나 단정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려 나가라'(장아람경) <아람경> <법구경> <선가귀감> <유마경> 등 경전과 고승들의 어록, 문집에서 이런 주옥같은 금언만을 골라 뽑은 금언집. 참된 삶은 무엇이고 수행 피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지 등을 주제별로 나눠 묶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삶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번 읽고 그날 지나치게 보다는 어려울 때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민족사 5,000원 (02)732-2403



눈밝은 선지식들 화두 수행담

■화두 짓는법/토방편집부 역음

선은 더 이상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간에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선수행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대로 화두를 들지 않고서는 올바른 참선수행은 어렵다. 이 책은 역대 눈밝은 선지식들이 어떤 화두를 들고 정진했는가에 대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안내서다. 화선의 정의와 함께 성철 청담 만공 한암 송담스님 등 14명 스님의 화두 드는 법과 화구 참선법이 일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있다. 참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생사심(生死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상이 일어난다고 '심(心)·자(字)에 세상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 토방 7,000원 (02)722-4588



쟁점 통해 불교사상 흐름 정리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이효걸 외 지음

젊은 불교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담은 논쟁과 비판,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불교철학의 발전사를 보여 주는 연구서. 불교는 인도로속사상과의 논쟁을 비롯해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가·유가사상과의 조화와 반목,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학과의 반목 등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대승불교 내에서의 중관학과 유식학의 논쟁을 비롯해 교종과 선종간의 갈등과 조화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불교의 쟁점들'을 통해 불교의 현대적 적용 방향도 모색했다. 예문서원 10,000원 (02)925-5914



구도자가 찾은 깨달음 세계

■선사들이 가려진 세상/신규탁 지음

도(道)가 무엇이고 묻는 객승에게 조주스님은 말한다. "도란 너의 집 담 너에게 있다." 그래도 못알아듣고 객승은 다시 묻는다. "그런 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대도(大道)를 여운 것입니까?"라고. 조주스님의 대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큰 길은 임금님 사시는 장안에 있다" 용담선사 일화 등 잊은 이야기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다. 깨달음의 세계, 거기가 바로 도에 미쳐서 도를 찾는 아들을 일깨우는 말이다. 잘 길을 못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저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 그 길에 출려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한다. 선어록을 읽는 방법도 친절히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고판이라 읽기 쉽고 편하다. 장력각 5,000원 (02)269-3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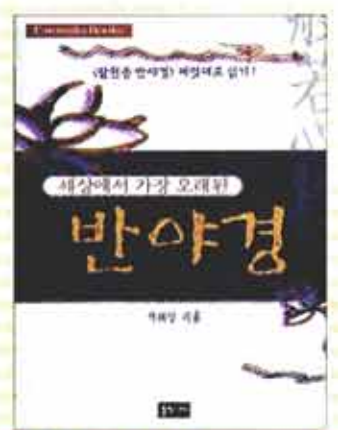


금주의 추천도서

대승불교사상의 진수 - 우리말 번역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해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經)의 반야경을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광현송 반야경>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우리말 번역본이 없어 일반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광현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광현송반야경> 제멋대로 읽기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감각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 재독도 이해하기 쉽도록 붙였다.

여기에서는 <광현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뤘다. 제1장에서는 참된 지혜와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대한 문해에 접근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생(不生)의 의미 등에 관한 문해까지 탐구했으며, 3장에는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살펴되어 있다. 대승불교사상의 진수를 읽을 때대로 맞출 수 있는 책이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명상말씀,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협·찬·사 OMNI RECORD 온니레코드 불교음반기획제작